



Music:조각배(색소폰)

## 소망있는 우크라이나

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 
문필가 도스토옙스키를  
배출한 나라,

국기 하단의  
노랑색이 곡창지대를  
뜻할 정도로  
비옥한 흑토 덕분에

'유럽의 빵 바구니'로도  
불리는 나라  
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 
지금 국제 사회의  
관심을 한 몸에 받고  
있습니다.

최근에  
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 
'젤렌스키 대통령이  
어떻게 우크라이나를  
지켜내고

세계를  
단합시켰나' 라는  
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고  
그의 지도력을  
조명했습니다.



타임은  
러시아의 침공 5 일째인  
지난 3 월 1 일,  
젤렌스키 대통령이  
유럽의회에서  
“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 
빛이 어둠을 이길 것”  
이라면서

유럽 각국의 협력을  
촉구하는 연설을 두고  
“찰리 채플린이  
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

같았다.”고 평가했습니다.

코미디언 출신인  
그를 희극 배우  
'찰리 채플린'으로  
표현했다가,

2 차 세계대전을  
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 
'윈스턴 처칠'에  
견준 것입니다.



지난 달 24 일,  
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 
침공했을 때만 해도  
하루나 이틀 만에  
수도인 키에프가 함락될  
것이라고 전 세계는  
예상했습니다.

하지만 미국이  
젤렌스키 대통령에게  
항공편을 제공할테니  
망명할 것을 권했을 때  
그의 태도는  
단호했습니다.

군복을 입고 나와서

“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 
도망갈 항공편이 아니라  
더 많은 탄약입니다.”  
라면서

각료들과 함께 수도에  
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 
말했던 것입니다.



이러한 지도자의  
결기에 찬 말 한마디에  
전 세계는 감동했고,

우크라이나 국민  
13 만 명이 자원입대  
했으며,

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 
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 
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.

용감한 지도자에겐  
용감한 국민이  
있는 법인가 봅니다.

한 시민은  
러시아 탱크 앞에서

온몸으로 탱크를 막아  
세웠습니다.

소셜미디어에선  
“러시아가  
침공하기 전에는  
그가 누구지도 몰랐지만,  
이제는 내가 응원하는  
최고의 인물이다.”



“캡틴 우크라이나”  
이런 칭송이 쏟아지고  
있습니다.

키예프의 한 신문은  
“국민들은 그를  
‘우크라이나의 진정한  
초대 대통령’이라고  
부른다”고 전했습니다.

얼마 전  
아프가니스탄에서  
미군이 철수한 직후  
가족과 함께  
이웃 나라로 도주한  
아프간 대통령의 모습.

그 결과

미국이 20 년 동안  
도와준 나라가  
단 이틀 만에 탈레반의  
손에 넘어가는 비참한  
모습과 너무나 대조되  
었습니다.

우리는  
이번에 우크라이나  
사태를 보면서  
나라다운 나라를 보았고,

지도자다운  
지도자를 보았고,  
국민다운 국민을  
보았습니다.

우크라이나의  
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을  
대한민국은 언제쯤

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

아마도 국민 모두의  
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 
것입니다.

이 말이 틀렸다면  
'아마도'라는 말 때문일  
것입니다.

'우크라이나 음악의  
아버지'로 불리는  
미콜라 리센코가 작곡하고,  
민족주의 작가  
콘니스키가 가사를 쓴

”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“  
(몰리뜨바 자 우크라이누)  
라는 곡이 있습니다.

제 2 의 국가 같은

노래입니다.  
“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나니  
우크라이나를 지켜주소서.  
그들에게 자유를,  
그들에게 행복을,  
그들에게 선량한  
세상을 주소서.”

우크라이나의 4 인조  
팝그룹의 보컬  
미하일로 코마가 부르는  
이 곡을 들으시면서

전쟁 중인  
우크라이나를 위하여,

그리고 새로운  
지도자를 맞이하는  
대한민국을 위하여

잠시나마 하던 일을  
멈추고 기도해주시지  
않겠습니까?

출처:  
<https://sulwsuk.tistory.com/1462>  
[KT 전북기독교교회]  
?좋은 글 중에서 ?





우리 벗님들~!  
 健康조심하시고  
 親舊들 만나  
 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  
 餘裕롭고 幸福한  
 나날 되세요~^



